

#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액 사상 첫 8억달러 돌파

작년 8억7767만달러

전년보다 12.7% 늘어

김·쌀·수산식품 두각

우크라이나 등 다변화

지난해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총 8억7767만 달러로 집계돼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7억7878만 달러보다 12.7% 증가한 규모로, 미국 상호관세 장벽 등 어려운 통상 여건에서 거둔 의미 있는 성과다.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은 2021년 5억 6012만 달러, 2022년 5억5894만 달러 수준에 머물렀지만 2023년 6억3163만 달러, 2024년 7억7878만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처음으로 8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 같은 성과는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등 경쟁력 강화 정책과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국제박람회 참가,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수출보험료 지원, 온·오프라인 해외상설 판매장 운영, ‘케이(K)·전남김’ 브랜드 육성 등 수출 유망품목 집중 지원과 케이푸드 확산 노력이 결실을 본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상호관세 등 통상 환경이 악화된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이 13.1% 증가해 1억7512만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 품목인 김은 10.4%, 매는 17.3% 각각 늘어나며 미국 수출 확대를 견인했다.

품목별로는 수산식품 수출이 5억4925만 달러로 전체의 62.6%를 차지했으며, 김은 4억3167만 달러로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의 49.1%를 담당했다. 신선농산물 수출도 1억314만 달러로

전년보다 23.3% 증가했다. 전남 쌀은 일 본으로의 첫 수출에 성공해 336t을 기록했으며, 이는 국내 전체 쌀 수출량의 50.6%를 차지하는 성과다.

국가별로는 우크라이나(41.4%), 태국(32.1%), 폴란드(29.9%), 독일(24.9%) 등 신흥시장에서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이 통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영광이 전년보다

283.4% 증가해 가장 큰 성장폭을 보였고, 함평(174.6%), 화순(171.7%) 등에서도 수출이 크게 확대됐다.

신협과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2026년 농수산식품 수출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해외 판촉과 시장 개척 적극 추진,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 확대와 온라인 수출 플랫폼 입점 지원, 글로벌 마케팅 강화를 통해 수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 ‘검은 반도체’ 전남 김, 가공·유통 경쟁력 키운다

신안천사김 산지거점유통센터 구축…글로벌 수요 대응

전남 김 산업의 가공·유통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거점이 신안에 들어선다. 해양수산부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공모 사업에 전남 신안의 김 가공 전문기업 ‘신안천사김’이 최종 선정되면서다.

전남도는 해수부의 ‘2026년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건립사업’ 공모 결과, 신안군 보조사업자인 신안천사김이 사업 대상으로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선정에 따라 2028년까지 3년간 총 80억원이 투입돼 산지에 가공·저장·유통 기능을 집적한 거점시설이 구축된다.

이를 통해 김을 비롯한 수산물의 수급 안정과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전남은 전국 김 생산량의 78%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최대 김 주산지다. 2025년 말 기준 전남 김 생산량은 54만t으로, 전국 생산량 69만t 가운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전남 김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검은 반도체’로 불리며 K-푸드 수출을 이끄는 전략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신안천사김은 전남 산 고품질 원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온 대표 김 수출 기업이다.

연간 수출액 1억달러를 돌파하며 전남 수산물 단일 품목 기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고, 2022년에는 1억달러 수출기념탑을 수상했다.

전남도는 이번 FPC 건립을 통해 고품질 물김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는 한편,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냉동김밥 등

가공제품 시장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 전용 물류·저장 시설 확충과 함께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참여를 통해 내수 판로까지 넓힌다는 구상이다.

박영재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산지거점유통센터 선정은 전남이 세계 최대 김 생산지를 넘어 글로벌 가공·유통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지 유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어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설 선물은 농협홍삼으로 준비하세요” 농협 광주본부와 농협홍삼은 21일 농협광주유통센터 한삼인 매장에서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농협홍삼 판매촉진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육영석 농협홍삼 대표, 이철호 농협 광주본부장, 임철현 NH농협은행 광주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 명절을 맞아 홍삼 시식 행사와 홍보 리플렛 배부 등을 통해 농협홍삼의 우수성을 알렸다. 이철호 농협 광주본부장은 “농협홍삼은 엄격하게 선별된 국산 홍삼과 우수한 원료만을 사용해 뛰어난 품질을 자랑한다”며 “설 명절을 맞아 더 많은 분들에게 농협홍삼에 담긴 진심과 건강의 가치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 농협 전남본부, 국산 축산물 소비 촉진 ‘앞장’

임직원 대상 농협목우촌 제품 홍보·시식

농협 전남본부는 21일 본부 1층 로비에서 범전남농협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산 축산물 소비 촉진과 농심천심운동 실천을 위한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농협의 핵심 가치인 ‘농심천심(農心天心)’ 정신을 바탕으로, 국산 축산물 소비 확대가 곧 축산농가의 소득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공감대를 확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농협 임직원 스스로가 농심천심 가치를 실천하는 소비문화의 주체가 되자는 취지다.

행사는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을 비롯해 장재영 NH농협은행 전남본부장, 차상훈 전남노조위원장, 편지형 전남검사국장, 윤정숙 농협생명 전남총국장, 정서연 농협목우촌 전남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 현장에서는 농협목우촌이 최근 출시한 ‘생생육포세트’를 비롯해 설 명절 선 물음으로 적합한 다양한 국산 축산물 가공품을 선보였으며, 시식과 증정 행사를 통해 임직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정서연 농협목우촌 전남센터장은 “농



협목우촌 제품은 모두 국내산 축산물을 사용하고 있다”며 “농협목우촌 제품을 소비하는 것 자체가 축산농가를 돕는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농심천심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과 실천이 축산 농가에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공유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국산 축산물 소비 확대를 통해 농업인과 상생하는 농협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 농·축협 신용카드 교육…농심천심운동도

전문성 강화·관심도 제고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본부 2층 대강당에서 관내 농·축협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남 농·축협 신용카드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카드 추진 전문성 강화와 사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통해 카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2026년 업적 평가 및 추진 기법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마케팅 전략과 우수 사례 △개인(신용) 정보 보호 △농·축협 카드 사업 구조와 손익 이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교육에 참석한 농·축협 임직원들은 동심협력의 마음으로 농업인이 존경받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 실천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연세 증가 등으로 손익 관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축협 임직원 모두가 비이자이의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카드 사업 조기 추진 분위기가 조성돼 전남농협이 2026년에도 전국 1위의 명성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본부 2층 대강당에서 관내 농·축협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남 농·축협 신용카드 교육’을 실시했다.

## 농협, 구조 개혁·체질 개선 본격화

외부 전문가 참여 ‘농협개혁위원회’ 출범

농협중앙회는 최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학계·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협개혁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21일 밝혔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외부 위원 11명과 내부 위원 3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회의에서 이광범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돼 운영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위원회는 구조적 개혁과 체질 개선을 위한 공식 논의기구로서, 내부 시각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 의견, 정부와 국회의 논의 사항까지 폭넓게 반영하는 종합적 개혁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농협은 이를 통해 자체 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위원회 회의는 매월 정례적으로 운영되

며, 제2차 회의는 다음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중앙회 및 계열사 지배구조 개선 △조합의 민주적 운영 강화 △경영 투명성 제고 △조직 및 사업 경쟁력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중금감사 결과와 농협법 개정안, 법농협 자원의 주요 핵심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무 부서 실행으로까지 연계되는 구체적인 개혁 과제를 도출할 방침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외부 시각에서 농협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실행 중심의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개혁을 통해 농업·농촌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농협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 강순진 제12대 고향주부모임 전남도회장 취임

정기총회 개최…농심천심운동 확산 앞장

농협 전남본부와 (사) 고향주부모임 전남도지회는 최근 본부 2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과 고향주부모임 시·군 대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사업계획 심의와 함께 제12대 고향주부모임 전남도지회장 취임식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총회를 통해 강순진 회장(목포농협)이 제12대 고향주부모임 전남도지회장으로 취임하며, 전남도지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고향주부모임 전남도지회는 그동안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을 비롯해 중식 지원과 나눔 봉사, 재해 현장 복구 활동, 농촌 일손 돕기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 특히 올해는 농심천심운동 확산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아침밥먹기 캠페인과 가족·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농산물 소비 촉진 활동을 통해 농업의 가치를 국민 생활 속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강순진 고향주부모임 전남도지회장은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희망농업·행복농촌을 고향주부모임이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고향주부모임이 농업·농촌과 지역사회를 잇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농심천심운동의 주체로 활발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

## 농업 대전환의 해법은…농업전망 행사

오늘 서울 잠실 롯데호텔

쏟아진 회복·직불 확대 진단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제29회 농업전망 행사가 22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K·농업·농촌 대전환, 세계를 품고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기후위기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 다중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농업·농촌의 현재와 미래를 다각도로 조망한다.

KREI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농업은 기후변화 심화와 국제 경제 불안, 역대급 대형 산불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의 전략적물적확대와 벼 재배면적 감축에 따른 쌀값 회복 등의 영향으로 농

업 총생산액이 전년 대비 3.2% 증가했으며, 농가소득 역시 전년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환율 상승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제유가 하락과 농자재 지원, 공익직불금 확대 등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농가 경영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농업 총생산액 증가와 함께 농가소득도 전년 대비 2.8%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번 농업전망 행사는 우리 농정이 집중해야 할 핵심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제1부 ‘농정 방향과 한국 농업·농촌의 미래’ △제2부 ‘2026년 농정 이슈’ △제3부 ‘산단별 이슈와 전망’ 등 총 3부로 구성해 진행된다.

나주·조환현 기자 pose007@gwangnam.co.kr